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설명자료

www.kaff.or.kr

12만 **농업경영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를 이뤄냅시다.

우리농업의 희망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농업인의 권익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 경제·금융위기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자체의 위기를 넘어 경제사업과 농협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농민조합원과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토대로 농민단체 중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농민중심적이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경분리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농협중앙회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신경분리안은
경제사업의 전문성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상호금융의 독립법인화, 부족자본에 대한 지분 배분문제가 불명확해
이대로 통과될 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가 될
우려가 큽니다.

중앙연합회는 본 설명자료를 통해 각 시도시군연합회에
한농연 신경분리안을 설명하고,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본 설명자료를 숙지하시어
농업의 백년지대사(百年之大事)를 판가름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올바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준 봉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 ,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

- '08. 11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한농연 손재범 사무총장 참여)" 설치
- '09. 2~8 :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 방안 마련 및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과정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안 건의
- '09. 10. 27 : "농협중앙회 ", 농협개혁위원회 안과 다른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안 정부, 국회에 건의
- '09. 10. 28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10. 2. 19 : 한농연-김춘진 국회의원과 연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 국회 제출
  - ▲농협 신경분리 동시 분리 및 시기 명시 ▲경제사업 자본금 우선 배정
  -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농협보험-축산대표(현행유지), 조세 특례 유지 등
- '10. 11 : 한농연 신경분리안을 중심으로 농업계 단일안 확정
  - 현행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금융지주·상호금융연합회로 개편
  - ▲농협 신경분리 동시 분리 및 시기 명시, ▲경제사업 자본금 우선 배정
    ▲농협 보험, 축산대표 선출(현행 유지), 조세 특례 유지 등
- '10. 12. 6 :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정부-농협-농업계안 심의
- '11. 2 : 당정은 정부와 농협이 합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 입장
  -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 경제사업활성화와 거리가 먼 농협법 개정안 강행 처리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국회 논의 동향, 쟁점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쟁점사항

- 경제사업에 자본금 최우선, 최대 배분원칙 고수
-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시점 및 운영체계 명시
- 사업분리시 세금에 대한 세제 및 지원
- 농협보험 특혜 부여 여부





국회 논의 동향의 문제점

- 농협법 개정 작업에 농업계 단일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한농연 등 농업계 단일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농업계 단일안의 이해도가 낮아 농협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
- 신경분리 논의가 농협금융지주회사 위주로만 이뤄질 우려가 높음.
  - 국회 내 신경분리 논의가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치우쳐 논의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를 통한 국책은행 설립 의도까지 우려되는 상황
  - 이에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자본금과 사업 시스템 정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왜 해야만 하는가?

신경분리 이유

1) 금융위기 가속화에 따른 신용사업의 위기 (경제사업에 악영향)
2) 신용사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 (BIS 기준 조정 등)
3) 경제사업 자본금 취약으로 적자 심화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
4) 지역조합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중심 신경분리 분쇄)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신용사업의 리스크, 경제사업 및 일선 조합에 전가될 위기

- 현행 유지시 농협중앙회는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해 신용사업에 매진할 것임.
  - 농협중앙회 자기자본비율은 11.12%이나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해야 함.



- 신용사업에서 빌리는 이자부담이 경제사업의 주요 적자 요인으로 작용
  -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의 내부이자율이 높아 경제사업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지역조합 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
  - 시군지부와 목우촌·한삼인 등 자회사가 지역 조합과 경합 관계를 가지며, 지역조합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을 더욱 악화

농업인과 경제사업을 위하려면?
한농연의 신경분리 관련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경제사업 부문 자본금 최우선·최대 배분 원칙, 농협법 부칙에 명시**
  - 현재 농협 경제사업은 자본금이 없다 보니 신용사업에게 우량기업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차입하고 있는 상황임.
  -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사업의 투자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경제사업에 최우선, 최대 배정되지 않을 경우 신용사업만 먹튀 상황 발생

-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대형화되는데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은 각개전투 식의 사업을 하다보니 경쟁력 향상 제고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상호금융이 자본금을 가지고 법 시행 3년 후에 독립법인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협보험 특혜 부여**
  - 지역조합이 일반 은행처럼 **"방카슈랑스룰"**을 적용을 받을 경우 지역조합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인 공제,카드 등 사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지점의 방카슈랑스룰 적용을 최소 5년 이상 유예해야 함

- **조세 특례 유지**
  - 농협을 사업 분리하면, 상법상 8,000억원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고 매년 2,000억원 ~ 5,000억원의 조세 부담이 발생
  - 만약, 조세 특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민의 자산이 농협의 부실화의 우려가 크고 이 부담은 농민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신경분리시 조세 특례가 필요



▶방카슈랑스룰이란?

: 금융기관 대리점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25% 이하로 해야 하는 규정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 관철을 위해 지역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농협법 교육으로 일선 회원들에게 신경분리를 제대로 알리자!!

- 한농연의 신경분리 요구사항 인식을 위해 교육 강화가 필요
- 시군연합회별 상시교육을 통해 농협법 내용을 통해 일선회원까지 인식해야 함.
- 중앙연합회는 **지역연합회 요청시 강사 및 자료집을 수시로 지원**하겠음.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일선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 2월 임시 국회를 통해 농협법 신경분리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중앙연합회**는 국회 상정시기에 맞춰 **지역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이에 동참을 통해 신경분리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을 대대적으로 알림.

▶지역구 의원 면담으로 한농연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철시키자!!

-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요구사항' 전달을 통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담은 농협법 관철 진행





